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6. 2. 13.(금) 17시

해외 동포 청년, 정착 지원 본격화...첫 장학생 선정

- 재외동포청, '26년도 해외 및 국내 체류 동포 청년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(동포 청년인재의 국내 유치·정착 지원)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과 재외동포협력센터(센터장 김영근)은 '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「동포 청년 인재 유치·정착 지원 사업」의 '학업 지원' 대상 선정 결과를 2.13(금) 발표했다.

※ '대상자 발표는 재외동포청 공식 포털인 **코리안넷(www.korean.net)**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공지 예정

- 이번 사업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,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쏠(전)주기 지원사업이다.
- 선정된 '학업지원' 대상자는 국내 대학(원)과정 또는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 필요한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을 지원받는다.

□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국내외 동포 청년들이 다수 지원했으며, 약 3.3:1의 경쟁률을 보였다.

-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원자의 역량, 성장 가능성, 국내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.

○ 사업 첫해이자 비교적 짧은 접수기간이었음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동포 청년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체류 동포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역량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특히 동포 청년 인재가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활력을 더하고,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○ 아울러,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‘학업 지원’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, 귀환을 희망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‘취업교육·훈련 지원’ 사업 역시 연내 개시할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	책임자	팀 장	김동욱 (032-585-32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동 (032-585-3281)
			주무관	홍혜원 (032-585-3282)